

"③ Ⅱ. 후배를 생각하며 웃음짓는
당신의 모습은 정말 아.름.땀.습
니.다 Ⅱ"

선임생 맞이 준비에 애쓰고 계실

각 과 선배님들과 언제나 함께 하고자 하는 중어학생회가

조그마한 부분이나마 돕고자 반돈 글입니다.

비록 일관 내용은 못되지만 세뱃들을 맞는 기쁨 마음만은

전하고자 감히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돌아보고

함박 웃으며 건강한 세뱃들을 만날 수 있었음 합니다.

열렬히 참여하는 연세여성의 진솔한 뜻.

어머니 사랑, 조국 사랑의

슬기모아 뱃들과 함께 살아갈,

제4대 중어학생회가 올립니다.

非非非 雜 聞 非非非

①. 자료집을 발간하며 (1)

②. 총어학생회는 우리들의 조직입니다. (2)

③. 신입생을 알자! (5)

④. 무엇을 가지고 만날까요?

1] 학생회에 대하여 (8)

2] 대학 내의 여성문제에 대하여 (10)

3] 신입생을 만나는 올바른 선배의 자세 (11)

⑤. “신입생 어학우의 날”은...

1] 의 의 (12)

2] 내 용 (13)

3] 첫풀이 이렇게 준비합니다. (14)

II. 자료집을 발간하며

“신입생 어학우의 날”은 대중 놀고 배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92, 93년 연세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선배를 차원의 집단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신입생을 맞이한다는 것이 단순히 술마시고 떠드는 것으로 지나가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1분을 만나더라도 준비된 모습으로 만남시다.

이 자료집은 신입생을 만나는데 있어서 주체교양이라는 부분에 방점을 두고 발간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모를 당위적인 말들일 수 있지만 꼭 우리의 모든 사업에서 들어줘야 할 원칙입니다.

가열차게 읽고 토론합시다!!!

신입생을 만날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겸허한 자세로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비판을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신입생 어학우의 날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년을 출발하고, 말하기보다는 발로 뛰어다니는 총어학생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 일 임 원 46년 1월 11일

잠시 우리들의 대학생활을 되돌아 봅시다!

연세동산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현재 52개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어학생은 거의 없으며, 형식적인 어학생 부대표는 있을지언정 학년이 높아질 수록 그것조차 거의 희박하다는 것. 저희들이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현상 위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남녀 학생들의 자유롭지 못한 의식입니다. 구체적인 주변 생활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현상들은 결코 사소하다고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체적인 현상 하나하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깨어나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생활 그 자체에 매몰되어,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의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은 마비되어 버리며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잠겨워지고 문제를 문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억눌리고 있는 현실은 여성이라면 누구나 함께 손 잡고 모순의 장벽을 깨뜨리고 나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 천 어학우 여러분!

우리 함께 이러한 노력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총학생회는 길들여진 여성에서 주체적인 인간으로의 자기 변신의 장이자 동시에 이 땅의 여성들을 억누르고 있는 장벽을 깨뜨려나갈 우리들의 조지입니다.

“우리에겐 함께 고민하며 손잡고 살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하는 주체의 노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러한 ‘주체의 노력(활동)’을 운동이라 한다. 따라서 어학생운동이란 “어학생주체가 되어 여성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과 억압, 착취를 거부하고 여성을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므로 어학생운동을 달리 말한다면 “어학생이 주체가되어 자신들의 자주적 지향과 권리를 획득해나가는 활동”이라 하겠다.

어대생은 걸 보기에겐 기층 민중여성의 선망이 되는 만큼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는 대상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본질적인 어대생의 존재는 자유스러워 보이는 겉모습과는 괴리됨을 알 수 있다. 첫째로 어대생은 근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허위

식은 자신이 누려야할 권리에 대해 무지하게되고 전국은 지배자같은 대학생과 제제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본연의 임무는 가정일’이라는 이데올로기는 대다수 여성들에게 ‘결혼 제일주의’를 갖게하며 이것은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이거나 결혼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의존, 환상을 갖게 한다. 같은 대학생과 결혼하더라도 계층상승을 통해 지배 계급으로 편입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을 볼 때 결혼을 통한 계층 상승의 욕구가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음에도 왜곡된 의식은 학문 보다는 상품광고에서 조장하는 사치와 허영심을 더 가짐으로써 소비적인 인간 형이 되어버리고 만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청년학도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학문 탐구나 일정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되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된다. 둘째로 어대생은 사회적 진출에 있어 더욱 진공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본연의 임무가 가정일’이라는 이데

올로기는 여기서 또 적용되어 여성은 같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있다 해도 일단 임용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또한 어려운 경쟁을 뚫고 위치를 하었다 할지라도 여성차별과 수모, 모성보호의 소홀, 승진 기회의 박탈 등은 여성을 직장에서 가정으로 강제로 쫓아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차

별 이데올로기의 유조와 여성정책은 여성의 노동력을 초과 착취하는 것을 아주 용이하게 하며 전체 노동자의 임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세

째로 모든 인간관계 자치활동으로 부터의 소외입니다. 여성차별정책은 교과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 그 교육과정을 마친 어대생은 스스로 왜곡된 의식에

길들여져 모든 인간관계에서 소극성, 수동성, 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렇게 편성화된 정은 학내의 모든 자치활동, 학문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

지 못하고 항상 뒷전에 밀려 있거나 입장없이 따라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여성들의 길들여진 인식 외에도 남녀차별의식은 학원 내에도

아직 불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남성위주의 문화, 풍토, 공간 등의 문제가 파

생하며 이것은 여성의 소극성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와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어대생은 그 존재로부터 해방의 동력을 또한 갖고

있습니다. 여성의 혁명성은 모순 대립의 첨예한 내부로부터 엄청난 힘으로 잠

성을 무한히 발휘할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여학우들의 자주적 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모든 조직은 모두 여학생운동을 줄여나가기 위한 조직체라 하겠다. 그러나 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보다 목적의식적이고 과학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직을 건설해야 한다. 운동이 승리하는 관건은 다수대중의 목적의식적, 조직적 흐름이 필요하다. 운동의 주제인 다수 대중이 자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이후 지향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의식전환과 조직화를 위한 사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았을 때 현재까지 제기된 조직체 중 가장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체는 여학생회 체계라 할 수 있다.

간혹 여성대중 조직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 학생자치기구 중에 '총학생회'라는 기구가 필요한가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총학생회에 한 활동의 평가 속에서 유의미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당하고 원칙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천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획득한 정당성은 사상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인 조건의 열악함을 타개하고 앞으로 발전해야하는 지향점 자체까지 부정하는 태도는 또한 형이상학적 태도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일반적으로 종학생회는 전 학우를 자기 대상으로 실천하는 대중조직이다. 그 속에서 총학생회는 일차적 자기대상 (전 학우들의 인식변화에 또한 기여하기 때문에 일차적이라고 분리함) 으로 하는 여학생 대중조직이다. 이는 하나의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에도 일반적 내용과 방식을 가지고 여학우들과 만나게 될 경우 역사 속에서, 생활관계에서 항상 부차적인 것으로 교육되고 기들어져 온 존재조건으로 인해 여전히 주변인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또 한 의견으로는 총학생회 집행부 내에 부서를 두어 여학우들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들을 수렴하여 일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한 부서로서 구조적 한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갖는다. 여학우들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는 학원 내에서의 이성 불평등적 요소의 해결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성 불평등적 요소의 법적 해결과 사회 근본적인 모순에서 기인함으로 인한 정치경제적 모순 해결에까지 미치므로 이를 수렴하는 것은 자못 방대하다 하겠다. 그런데 총학생회 집행부의 사업 내용이 항상 여학우들의 이해와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며 총학생회 집행부장의 각각의 독자성과 업무의 과다함은 특별히 여학우들을 사교의 중심에 놓고 활동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타 부서에 비해 여학생부는 그 활동 영역이 방대하고 그 대상이 독자적이고 특수하기에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여학우들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는 한국사회 구조 속에 여성이 받는 억압 구조에서 기인하며, 여학생들이 받는 비민주적 사회중토 속에서의 갈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활동은 여학우들과 함께 하는 활동공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총어학생회는 전체 학생회가 발견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확보, 일조

길을 담보한다. 즉 현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상이한 처지와 조건에 따라 전문적으로 올바른 방침을 모두 내오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다종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받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서 출발하여 자주적 인간으로서 나갈 방법을 배우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를 목적의식적으로 학생회 공간과 밀접하게 연관시키며 학생회를 중부화 시키고자 한다. 이들 중 여성이라는 특수한 처지와 조건으로 이해와 요구를 가진 이학우들과 함께 이들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그것을 전체 운동에 대한 의지로 끌어 올리며 인간답게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학생회 발전에 일조권을 담보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일상적 자기활동 즉 독자적 활동을 전개할 것을 임무로서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총여학생회의 발전은 곧 총학생회의 발전을 가져오며 총학생회의 발전은 총여학생회의 발전을 내포하게 되는 상호 보완적 관계이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의 독자적 활동의 제 내용은 어디서부터 확보되는가? 그것은 총학생회의 지도속에서 획득되는 것이 아닌 자기 메커니즘을 활용한, 스스로의 주체성을 획득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결국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여성은 여러가지 모순을 중첩되게 받고있는 만큼 그 실권의 노력 또한 몇배가 되어야만 비로소 여성이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는 세대의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이학생의 운동요구와 그를 담보해 낸 조직으로서의 총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직의 실제적 건설의 문제가 나타나는데 이는 사급히 여학우를 통일적으로 묶어낼 지도단위의 탄탄한 건설과 이에 따른 여성대중의 통일적 실천단위인 하부단위의 구축으로 나타나며 이를 위해 여학생회는 매 사업을 통한 주체의 발굴과 올바른 지도내용의 확보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구체적으로 현재 여학우들의 실정에서 나온 근거를 가지고 방도를 좀더 자세히 고민해보기로 하자.

3. 원인을 알라!

해방 이후 일제의 식민지 교육을 경산하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이 권력에 강요되어온 우리의 교육 현실은 좀더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려는 학생들의 자주적 노력들을 억압해왔다.

학생들을 억압하며 학생들의 사고와 정서를 왜곡시키는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가장 큰 요인이 입시교육이다.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학습량이 너무 많은데다가 일방적으로 주입적인 수업방식으로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기 어려우며 상대평가에서 오는 실력의 상실감을 극복할 수가 없다. 자율학습, 보충수업, 과외 등의 계속 배치와 부활을 오락가락하는 문제도 학생들을 억압한다. 과외로 인해 저소득층의 학부모와 학생의 소외감은 더욱 깊어지고 그들의 진학기회도 줄어들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지학력—지소득—지교육—지학력으로 악순환되는 사회구조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대학에 들어가려는 학생 수가 대학 정원보다 엄청나게 늘수 밖에 없다. 학생들의 자살도 대부분 성적,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다.

치열한 입시교육은 '정복하지 정복당한다' '내가 웃고 있을 때 친구의 책장은 넘어간다'는 식으로 친구까지도 적으로 여기며 자기중세를 위해 고독한 싸움을 벌이게 한다. 이러한 입시 경쟁과 교육이전은 학생들에게 공동체적 삶의 자세를 키울 기회를 주지 않는다. 많은 경우 인간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두지 못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사고와 정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청소년 문화를 들 수 있다. TV, 라디오, 오락실, 만화, 잡지 등에서 다루는 청소년 문화의 내용들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도피적인 내용에다가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감각적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무분별한 왜곡문화, 소비문화, 오락실, 디스코장, 볼러스케이장 등 청소년들이 연관 맺고있는 많은 것들의 대부분이 억압된 감정의 발산, 현실도피라는 측면과 상업주의와 결합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금의 청소년들은 많은 억압의 굴레에서 살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신입생들을 만나나가는 자세에서 그들의 현재적 상태를 잘 파악하자. 모든 문제는 그들의 현재적 수준에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그들의 의식상황을 살펴본다.

학생들 스스로 민주적인 권리를 찾아가고 비교육적인 학교현실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교육주체로 바로 서기 위해 오늘날 학생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객관적 타당성이 문제점으로 남을 수 있었지만 개략적인 표본조사로서 학생 일반의 의식상황을 어느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1. 학교교육 현실에 대하여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남녀 학생 2100 여명을 대상으로 1990년 5월 초 설문조사 한 것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지식만 가르치고 그밖의 것은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문항에 대해 '확실히 아니다' '아닌 것 같다'에 각각 49.6%, 33%의 학생의 응답, 82.6%가 학교에서는 지식 이외에도 전인적인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MBC에서 충청북도 네 도시와 농촌 고3 남녀 학생 955명을 대상으로 1990년 5월 중순 경 설문 조사한 것에 따르면 '현행 학교 수업의 문제점으로 암기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 (37.1%), 개인의 특성과 개성을 무시한 획일적 교육 (53.2%), 지나치게 교과서 중심 (7.9%)을 지적하였고 1.8%만이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에는 꼭 진학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그렇다' 56.2%, 본인의 뜻보다 타의에 의해 16.7%, 진학할 필요가 없다 7.4%, 잘모르겠다. 19.7

%로 나타났고, 대학에는 무엇때문에 진학하는가 하는 질문에는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존경하는 교사상'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조사 학생의 70%가 '학생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고 인격을 존중하는 교사'를 손 꼽고 있는 반면, '지식이 풍부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는 2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성의식에 대하여

중, 고교 학생의 성에 대한 의식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자극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9년 11월~1990년 4월에 걸쳐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중고교 학생 2200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1.6%가 피파하고 끔직한 방법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은 충동을 가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 응답자의 70%가 그런 충동을 가진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러한 충격적인 현실은 1980년 이후 만연된 폭력 음란 비디오와 공개적이고 건장한 성교 육부제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런가 하면 민주화 시대의 성행위는 상대방이야 어떻게 마음대로 즐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학생도 5.8%나 되었으며, 강간을 당한 경우 1.8%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의식에 대하여

서울시 중고교 학생 2100 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전체 학생에 65.2%가 빈부의 격차는 개인보다 사회에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또한 전체 학생의 69.2%가 이 사회에서 양심적인 사람은 살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경쟁의식과 공부에 대한 압박이 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가에 관한 윤리관에서는 국가가 망한다고 내가 망하는 것은 아니다에 62.2%의 학생이 부정적 응답을 해 국가와 자신이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국을 지킬 의지가 있는 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조국을 버리지 않겠다 35.9%, 가능하면 조국을 떠나겠다 35%, 잘 모르겠다가 27.4%였다. 특히 조국을 떠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잘 사는 가정의 학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MBC에서 조사한 교원노조에 관한 설문에서는 약89%가 전교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태에 대한 질문에는 심각한 경제위기 48.9%, 경제상태 28.7%로 대다수가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에 대해서는 50.5%의 학생들이 5공시절보다는 민주화되었다고 응답했고, 5공시절이나 같다 31.5%, 5공시절보다 비민주적이다 14.9%, 선진국 수준이라는 응답도 3.1% 있었다.

동일문제에 대해 동일을 위해서라면 폭력이나 무력에 의한 방법도 용납될 수 있다는 문항에 아니다가 70.5%로 나타났으며, 그 방법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동일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다루는 동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에 70% 이상의 학생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 가운데 북한을 비난한다, 자세하지 못하다, 비현실적이다, 진실성이 없다 등에 답한 학생들이 75%를 넘어 교과서의 서술에 상당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학생 일반의 의식 상황을 살펴보면, 실제 학생들 가운데 일부분은 그릇된 의식을 보여주는 면이 없지 않지만, 대다수의 많은 학생들은 기성세대의 염려와는 달리 자신보다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할 줄 아는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확고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바람직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

4. 무엇을 가져야 할까요?

이미 살펴 보았듯이 신입생을 만나나가는 내용에는 여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신입생 여학우의 날”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는 학생회강화와 여성문제의 인식, 신입생을 만나는 올바른 선배의 자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1) 학생회에 대하여

우리는 왜 학교를 다니는가? 공부를 잘 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진정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잘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무엇이 올바른지 모른다고 그냥 지나쳐 넘기면 그만인가?

학생이면 누구나 한번쯤 떠올리는 고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학교생활은 어떠합니까? 진정 주인이 되어야 할 학생회는 사람이 없고, 입시를 위한 3년의 고된 생활에서 해방되기도 잠깐 위임이라는 또 다른 벽을 허물기 바쁘게 도서관에서 책과 씨름하기 여념없는 생활, 곧종 학교 수업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 수업, 형식적인 과생활과 친구관계,...

우리들 스스로가 삶의 주인으로 서고 있는 생활들입니까?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들어왔지만 학생은 학교의 진정한 주인노릇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의 대학생회에서 주체적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떠한 집단이든 그 집단성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조직이 학생들에게는 학생회입니다. 다시 말해 학생회란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학생들 모두가 주인되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치조직”입니다. 학생들은 평소 학교생활에서 학생회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거나 나오는 상관없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제 학교와 학생회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회에 대해 알아 봅시다.

우선, 학교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학교는 사회발전 과정에서 방대해진

지식의 수용과정에서 학생으로 하여금 지적사고를 왕성하게 하며 창조성과 생활속의 지혜를 쌓아가게 하는 목표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지식교육은 우리들의 생활적인 기반을 배개로 다가올 때만이 의미가 있으며 살아있는 지식이 될 수 있는 곳입니다.

학교는 스스로 서는 주체를 배우는 곳입니다.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실천하여 책임을 지는 자주적 인간의 형성이 우리의 삶에서의 핵심입니다. 주체적인 인간이란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서고 자기의 목표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입니다.

학교는 함께 사는 지혜와 사랑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타인 또는 집단과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의식하기보다는 공동체적 삶을 꾸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는 사회를 혁신하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사회의 구조적 제반 문제에 비판적 기능을 실시해야 하며 학생들은 그것을 지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의 원칙들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활적인 기반인 학생회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학생회가 아니라 자신의 지향들을 지키고자 생명의 의지로 가득찬 학생회, 그 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 우뚝 서는 일이며, 이 땅의 참 해방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학생회는 학생들 스스로 일구고 가꾸어 나가는 조직으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삶의 주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곧 우리의 인간됨의 바탕이며 우리 개개인의 이해와 요구를 함께 걱정해주며 실현시키는 단결의 구심, 우리 힘의 근거입니다. 우리 학생회가 아직도 낮은 수준의 이해와 요구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단결의 구심으로서 아직 허약하기 때문입니다.

멀리 생각합시다. 특히나 신입생들은 고등학교의 불신의 학생회만을 학생회의 모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체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선배입니다. 끊임없이 생활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입생 여학우의 날”을 잘 준비하는 것으로부터 학생회는 강화됩니다. 선배들 차원에서 신입생맞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집단적인 힘으로 일을 해나간다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튼튼히 서게 되고 신입생들도 학생회 돌레에 묶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2) 대학 내의 여성 문제에 대하여

누구나 한 번쯤 여성을 규정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성문제가 발생한 근본 원인과 해결 방안은 눈에 잘 띄지도, 생각나지도 않고 그런 것을 주장하는 모습은 나와는 너무 다르게 느껴져 그냥 자포자기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 우리 여학생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한편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경우 개인적인 탁월함을 기반으로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습만으로 수 천 년 동안 쌓이고 굳어온 여성 억압의 현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대생은 청년학생으로 가지는 진보적 성향과 함께 여성으로서의 소극성과 의존성을 지닙니다. 소극성은 여학생이 학회, 동아리 활동, 학생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소외되어 있는 모습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선후배, 동기와의 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자기 정서에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선호하는 경향 등에서 나타납니다. 또한 청년학생으로서 진보적인 성향과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길 바라는 모습도 보입니다. 근로 여성으로서의 자신의 처지를 알지 못하고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기층 민중 여성들에 비해 특권의식을 가지며 결혼을 통하여 계층 상승을 꿈꾸게 됩니다. 여대생의 이러한 허위의식은 청년학생 본연의 임무인 진리에 대한 탐구와 열정을 현저히 떨어뜨리며 사회 전반적인 문제 특히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학생이 청년학생으로서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므로 문제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풀고자 노력하고 일단 실패가 생기면 밀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의식화, 조직화의 문제입니다. 의식화란 여학생들이 자신의 처지와 실정을 옳게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억압하는 모든 구조와 맞서 싸우겠다는 각오와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다수의 여대생은 의존성이 강하고 개인적이며 집단성, 규율성이 부족하고 모든 활동에서 소극적입니다. 또한 취업문제와 같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실질적인 문제에서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의식화의 내용은 생활상에서 느끼는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성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주지해야 할 것은 개별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공동체적 해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제도적으로 오랜 세월을 걸쳐 쌓여 온 것이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과 가장 깊이 관련되어 있는 사회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실천력을 한 데 묶어 공동의 힘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여성의 조직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성의 조직화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힘의 결집입니다. 이 결집된 힘으로 모순과 하나하나 싸워나가는 과정이 바로 여성운동입니다. 여성운동은 진정한 해방, 곧 인간해방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보다 나은 사회,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를 지향하는 여성운동은 우리 사회를 민주화하려는 노력 속에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고 남성과의 대립을 부추기는 잘못된 여성운동관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남녀차별, 곧 인간의 불평등을 극복하려면 여성으로서의 투철한 자기 인식과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를 똑바로 볼 줄 아는 사회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작은 일에서부터 남성과 함께 하나씩 공동으로 해결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신입생 여학우들을 살펴 봅시다. 그들은 누구 못지않게 허위의식이 강하며 비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물론 선배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우리가 먼저 아는 만큼이나 움직이고 살으십시오. 올바르게 풀이 갈 때 신입생들도 배울 것입니다.

선입생을 만나는 올바른 선배의 자세

먼저 신입생들에게 일방적인 것을 강요하려 들지 맙시다. 선배는 가르치기도 하지만 후배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있다는 겸손함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선배의 한 마디 말보다는 행동이 그들에게는 훨씬 크게 다가 옵니다. 실천없는 인식은 의미가 적습니다. 실천을 통해 후배들은 사고의 폭이 넓어질 뿐 아니라 논리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서적 변화를 가져 옵니다. 어떤 새로운 경험을 강하게 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후배들 입장에서 한 번 가슴으로 겪은 경험이 남고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입생과의 만남이 선후배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인간관계에서 출발하도록 준비하는 선배들 간의 집단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처음 후배를 맞는 90학번 학우들은 되도록 많은 이들이 모여 올바른 후배맞이의 준비를 서로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준비된 모습의 선배와 후배의 집단적인 만남은 후배들의 삶을 건강히 세우는 데, 크게는 이 사회를 바로 바라보는 좋은 기초가 되어 줄 것입니다.

만남에 있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선 나에게 감동여진 봉건적 잔재를 과감히 버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여성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이 얼마나 스스로의 삶을 주인으로 맞는 데 장애가 되는가, 또한 얼마나 지배자의 의도에 맞추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합시다. 여학생은 또한 여성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서로를 신뢰할 필요가 있으며 신입생 여학우들을 세심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사임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더구나 여학생의 경우 20 이 년 동안 아니 훨씬 전부터 계속되어진 '길들여지기'에서 하루 아침에 깨어나길 바라는 것은 선배의 조급함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진솔한 만남 속에서 참을성 있게 그들을 세심히 관찰하고 현상적인 모습보다는 잠재적 가능성을 믿

고 만나는 끈질긴(?) 선택이 됩니다.

동등한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선언이나 원칙만을 남발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조직적인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성에게 부여되는 기회와 책임은 '동등한 것' 아니라 '더 많은 것' 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불평등이 존재하는 구조 속에서는 '동등'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처음부터 똘똘한 조직을 생각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소모임이나 이학회조직의 강화를 통하여 그들의 낯은 생각들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모든 모임은 작고 클에 관계없이 오히려 모임이 클 수록 구성원 간의 생활적 결합도를 높이는데에 대하여 힘 쓰고 의리와 신념으로 함께하는 생활 공동체를 이루어냅니다. 후배들을 삶의 주인으로 일떠 세우는 데 있어서 먼저 선배 자신의 삶을 구체적 생활 습관으로부터 변화 시키려는 치열한 자신과의 투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중심의 생활 태도는 주체의 변화와 함께 이로부터 주위를 변화시키고 객관을 변화시키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후배들이 잘 따르지 않는다는 주범보다는 선배 스스로 올바른 지식을 신념화시키고 생활화할 때 후배들이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단의 힘을 믿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는 데 애써봅시다. 가장 초보적으로 함께하는 싱싱한 문화를 찾아내어 봅시다. 남학우, 여학우 함께 어울려 흥내고 하나가 될 문화적 풍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냅시다. 모든 일이 함께 될 때만이 신입생 친구들이 진정한 연세의 주인, 학생회의 주인으로 세계됨을 명심합시다.

< 신입생 여학우의 날... >

1] 의 의

신입생 열린 마당은 재학생과 신입생의 첫 만남의 자리이며 학생회가 준비하는 첫 행사입니다. 즉 신입생들이 진정 연세의 주인으로 서는 토대 마련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한 해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행사 속에서 여학우들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는 담보되고 있지 못한 듯하여 총여학생회에서는 따로 신입생 여학우들의 자리인 <신입생 여학우의 날>을 마련합니다.

앞의 자료에서 단편적으로나마 이야기 되었던 신입생들의 다양한 고민의 수준들을 이러한 만남의 장 안에서 올바르게 풀어낼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학생회의 사업들이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고 있는지 항상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곧 <신입생 여학우의 날>이라는 행사가 일회적인 중앙 사업이 아니라 과의 여러 선배들이 어울려 흥나게 준비하는 가운데 여학우들을 학생회 두리로 힘차게 세우는 과학생회 강화의 한 방도가 되는 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금은 금물!! 어디까지나 시작의 의미가 큰 행사이므로 욕심부리지 말고 서툰 관계를 넘어 따뜻하게 낮을 익히는 정도의 내용이면 좋을 것입니다.

이번 <신입생 여학우의 날>에는 이제 막 대학이라는 낯설고 기대되는 장에 들어오게 되는 호기심 많고 당돌한 우리 91학번 여 후배들이 무더기로 참가합니다. 무엇보다 이들을 반기고 돌 볼 선택과 학생회의 조직적 준비가 요구됩니다. 때로 당혹스럽기도하고 우습기도 한 질문을 거침없이 던질 지도 모릅니다. 씩씩한 말로 술술 풀어 낸다고 되는 아닐 것입니다. 백 번의 말보다 태도와 생활에서 보이는 작은 모습이 더 큰 감동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성의있게 준비된 모습으로 다가서야 하겠습니까. 그럴 때 불신과 왜곡으로 밀려졌던 고등학교 시절의 학생회와는 다른 진정 그들이 주인되는 학생회를 그들이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한 마디로 말하면! <신입생 여학우의 날>을 여학우들의 소극성과 비주체적 모습을 벗어내고 씩씩하고 멋진 여성의 모습으로, 학생회의 탄실한 주인으로 선후배 여학우들이 어울리는 장으로 만들어 버리도록 준비해봅시다!!

2] 내 용

*하는 날, 때, 곳: 1991년 2월 19일 1시 30분 대강당

*행 사 순 서

@ 과별 소개 시간 (단체별로 앉습니다. 기를 가져오는 것이 좋겠지요. 선배와 후배 자리배치에 신경을!)

@ 사전 장내 정리 문화 행사 (행사에 참여하는 신입생의 바램을 알아보고 씩씩하게 노래도 부르자고요!)

@ 개회 선언 (자, 시작입니다)

@ 여학생회장 축사 (간단한 격려 말씀!)

@ 총여학생회장 인사 (의의와 신입생에게 하고픈 말, 너무 많아서, 원!)

@ 슬라이드 상영: "여대생의 생활" (재밌게 보고 함께 야기도 해보십시오)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를 받아 안습니다. 또한 학내 여학우들의 생활을 제조명함으로써 여학우들이 껍껍해 하거나 문제의식을 갖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 문제제기 하려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여학우들의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차별이나 어려움 속에 여학우들은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의 수준이 일원함으로 인해 문제의 나열로 그칠 수 있는 한계도 보입니다만 새롭게 자신의 생활을 돌아 볼 계기를 마련해 봅시다.

@ 강연: "성차별 교육과 여대생"

신입생들은 12년 간 제도교육 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활에 접어들어 당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학우들은 특히나 성차별 교육을

받아왔지만 대학 내에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봅니다. 차근차근 지난 생활과 앞으로 겪게 될 날들을 떠올리며 해결 방도도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총학생회 및 단대 여학생회 소개

@ 어울림 한마당 (공동체 놀이로 한 마음 한 뜻)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는 대개가 준비로부터 마무리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보고 듣는 것입니다. 구슬 팟 놀리며 삶의 켜끼기들을 함께 일소하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이 곳에서는 함께 한다는 것 공동체적 신명의 즐거움과 공동의 큰 힘을 느껴 보도록 합시다.

@ 파벌 뿔뿔이 (식상한 기존의 모습에서 벗어난 선배들의 진수를 보여주는 자리로 만들시다. 본 행사의 가장 중요한 자리이며 치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많은 선배들이 함께 하도록 사전 연락을 조직합시다.)

3] 뿔뿔이, 이렇게 준비 합시다!

신입생이 그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백양로는 꼭 차고 신촌 거리는 늦은 시간까지 여러 무리의 노랫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에 시끌벅적해 집니다. 특히 신입생 열린 마당이 있는 동안은 연일 술자리에 빠진 선배 집으로 신입생을 모시기도 (?) 합니다. 돌아가는 이름 태기와 자동으로 따르는 노래, 그리고 기본적인 술자리, 온갖 우스개 소리로 자신을 기억시키고자 하는 선배와 선배의 뜻에 순종하고 술잔을 거두 원 샷!으로 배우는 신입생. . . 뿔뿔이는 그저 이런 군상들로 채워지고 이것이 이제껏의 신입생들에 대한 우리의 호의였고 관심의 표현방식이고 준비 자세였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뿔뿔이를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우선 19일엔 신입생 여학우를 대상으로 행사가 마련됩니다. 그 제목이 <신입생 여학우의 날 : 새로 배우터>라죠? 어찌 되었든 참가하는 이들이 죄다 여성들이고 보면 술 먹이는 것도 마땅치 않고 차를 마시자니 어딘지 게을리 못합니다. 이름 되면 선배로서 신입생 여학우와의 만남이 짧갑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어. 기. 서. 당. 신. 의. 생. 각. 을. 쥔. 어. 봄. 지. 다. 불과 1, 2년 전 당신은 꼬마 독수리니 어쩌니하는 싱싱한 신입생으로 그 좋다는 연세대학교를 들어 왔습니다. 공학이라는 사실의 황홀감(?) 파인대생이라는 자부심, 지긋지긋한 입시지옥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함께 다가오는 대학생

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했겠지요. 그런 당신에게 선배들은 어떻게 보여졌습니까? 당신을 당혹스럽게 한 것은, 혹은 새롭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흔히들 신입생을 맞는 자세로 대충 이러한 것들을 듭니다. 파격적인 행동을 삼가하고 찍어내는 여자 선배는 흡연을 자제하며 무엇보다 많은 사람을 동원하는 것. . . 족수는 가장 중요한 뿔뿔이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네, . . . 좋습니다. 이런 자세는 처음 대학문화와 생활을 접하는 신입생들로 하여금 당황하지 않게는 하지요. 그러나 온갖 것에 궁금해 하며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세우며 있는 신입생들에게 이런 외적인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바로 당신이 그러하였듯이 우리 91학번 후배들도 그렇게 다가들 것입니다. 당신과의 진솔하고 신선한 대화와 마음 나눔을 우리 후배들은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죠. 대학생생활에서 어떤 최고의 정수일 데까요. 그럼 당신을 무엇을 말 하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신입생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개별적이었습니다. 집단적이라고 해봤자 기껏 족수만 많이 채우는 것이었지요. 새 친구들을 만나는 자세와 내용은 너무도 개별적이고 주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 봅시다! 판 ~!!

당신이 먼저 동기 여학우들과 선배들을 미리 만나서 어떻게 이~쁜 신입생들을 멋지게 만날 것인가를 얘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집단적인 준비와 그 속에서 마련된 내용으로 위기만 감돌던 뿔뿔이 자리를 누구에게 의미있는 자리로 바꿔 보는 겁니다. 근사하지요? 신입생 후배들을 맞이하는 일을 바로 자신의 일로 여기고 기뻐하는 당신. 그 모습은 후배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선배의 모습이고 오래 기억되는, 진정 소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행사에 대한 소감도 좋고 작은 여학우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야그도 좋습니다. 학창 시절의 예외소드와 문제의식을 같이 나누어도 괜찮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대학생생활에서, 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 . . . 정보들, . . . 삶에 있어서의 가치, 대인관계, 학생회, 동아리 생활, 남녀 문제, . . . 총학생회 일꾼들이 어떤지 같이 이야기하며 웃을 수도 있겠지요.

이런 준비는 어떤가요?

사회사업학과에서는 90들이 모여서 첫 후배들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11일에 91학번과의 체육행사를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또 이 때 전공에 관한 정보들도 준비하여 도움을 주자고 하는 말도 있었답니다. 서로 이야기하며 과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나누어 보자는 것이지요. 또한 만남 속에서 19일 행사도 알려 주고 다음엔 무엇을 가지고 만날까 함께 생각도 나누고, . . .

너무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신입생과의 만남을 자칫 술먹고 취하는 날로 알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가 바로 사람을 만나는 자리, 특히나 새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삼스레 동기들과 후배들을 둘러보고 선

배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멋지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나눔 속에서 당당하고 자신감있는 당신의 모습.

바로 91이 바라는 선배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삶을 끊임없이 변화, 발전시켜 가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나. 그런 나로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자기 생의, 연세의, 이 민족의 자랑찬 주인되는 당신의 모습은.

진정 아.름.땀.습.니.다!

... (The following text is extremely faint and mostly illegible due to the quality of the scan. It appears to be a long, continuous paragraph of text, possibly a letter or a speech, discussing personal growth and community involvement. It includes phrases like '나를 돌아보며', '삶을 끊임없이 변화', '발전시켜 가려는 노력',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자기 생의, 연세의, 이 민족의 자랑찬 주인되는 당신의 모습', '진정 아.름.땀.습.니.다!', and '바로 91이 바라는 선배의 모습입니다!!'. There are also some smaller, less legible lines of text interspersed throughout the main paragraph.)